

Market Comment

Strategy 변준호 02) 6915-5670 / ymaezono@ibks.com

9월 FOMC Review

1. 3년 만의 기준 금리 인상과 추가 인상 시사

연준은 9월 FOMC에서 3년 만에 기준 금리 인상을 재개했다. 이는 최근 중동 리스크 재 부각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물가 상승 우려가 재 부각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중동 상황을 예상하기는 쉽지 않지만 일시적인 것이란 초반의 기대감은 점차 약화되고 있고 확전 조짐에 따른 장기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연준 입장에서도 그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실 미국은 유가 상승이라는 대외 이슈의 영향과 칩플레이션이라는 대내 이슈가 맞물리고 있어 인플레이션 우려가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국 경기도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둔화 우려가 지속되었으나 안정적인 성장 흐름을 지속하고 있어 금리 인상의 명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점도표 상으로 보면, 26년 대부분 점들이 4~4.25%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1회 추가 인상 가능성이 시사되고 있는데 동결을 전망한 점은 2개에 불과한 만큼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다만, 내년 점도표 전망은 인상과 인하 부가 상당히 엇갈리고 넓은 분포를 보이고 있어 전망의 일관성이 다소 떨어진다. 내년 전망은 중동 리스크의 추가 확대 혹은 축소의 움직임에 따라 방향성을 잡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10월 FOMC에서 바로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하기 보다는 12월이 좀 더 유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 및 물가 전망이 지난 6월 FOMC대비 극적으로 크게 바뀌지는 않았기 때문에 2회 연속 금리 인상의 명분이 다소 떨어진다고 판단되고 11월 3일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무리한 정책 변화를 시도할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현재 FedWatch는 10월 인상 확률을 50%, 12월 인상 확률을 90% 반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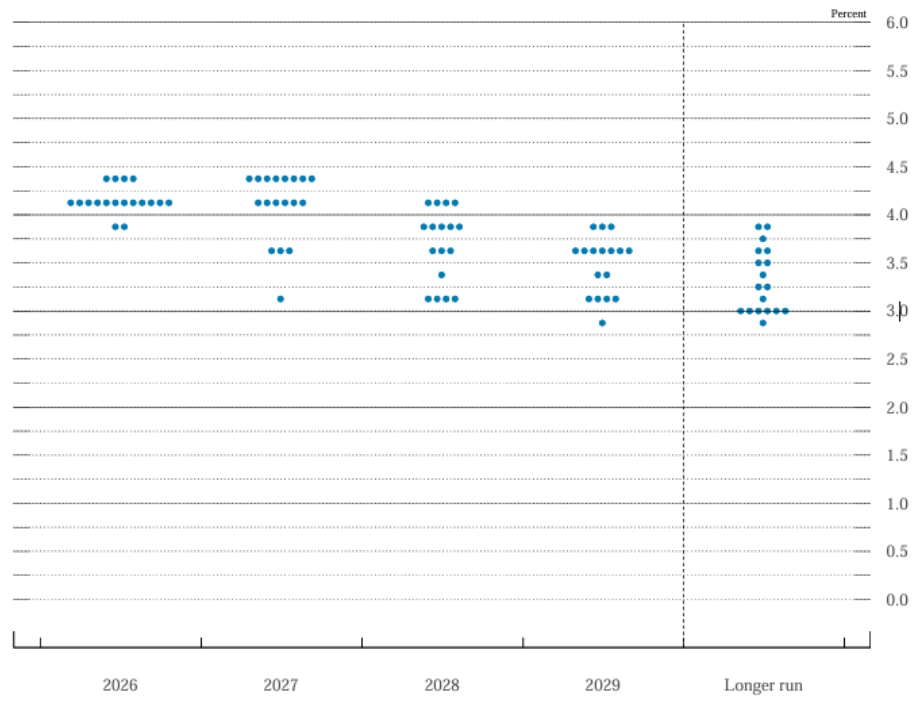
2. 금리 상승보다 환율 상승 주시

9월 FOMC 결과로 인해 연준의 매파적 스탠스에 따른 금리 인상 우려가 시장에 잔존하면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시장의 낙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이유는 (1) 우선 지난 주부터 FOMC를 앞두고 국내 증시가 경계감을 반영하며 선 조정을 보인 바 있고, (2) FOMC 결과에도 미국 시중 금리가 크게 변동하지 않은 점 (3) 연준의 경제 전망이 여전히 낙관적이라는 점 등에 있다.

연준은 이번 9월 FOMC에서 GDP 전망을 올해와 내년 모두 6월 FOMC대비 0.1%p씩 상향 조정했다. 또한, 올해와 내년 실업률은 모두 6월 FOMC대비 0.2%p씩 하향 조정한 4.1%를 전망했다. 표면적으로 경기 우려가 동반된 금리 상승은 아니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경기 악화로 해석할 여지는 적다. 하지만, 미국 물가가 재 반등하고 있고 금리가 크게 상승하는 상황에서 증시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 낙관론에 대한 경계감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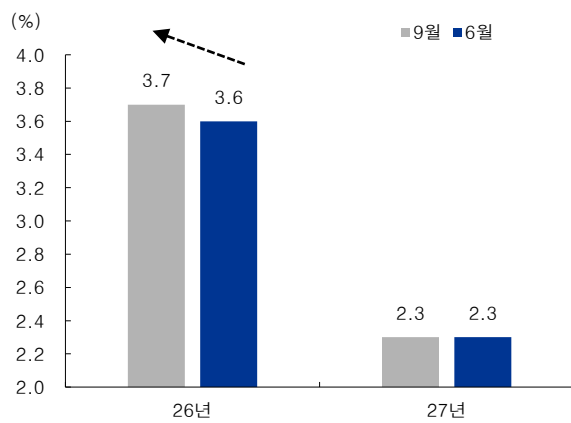
국내 증시 입장에서는 금리 상승보다 환율 상승을 더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7, 8월 2회 연속 금리 인상 후 당분간 동결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연준은 연내 추가 금리 인상이 예상되어 달러가 강세 압력을 받을 수 있다. 더군다나 원/달러 환율이 최근 급락 했었기 때문에 연준 결과에 따른 반등 민감도가 클 것이고 이로 인한 외국인 매도 압력 확대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환율이 단기 바닥을 친 9월 10일 이후로 외국인 매도세가 재개되는 양상이다.

그림 1. 2026년 9월 FOMC 점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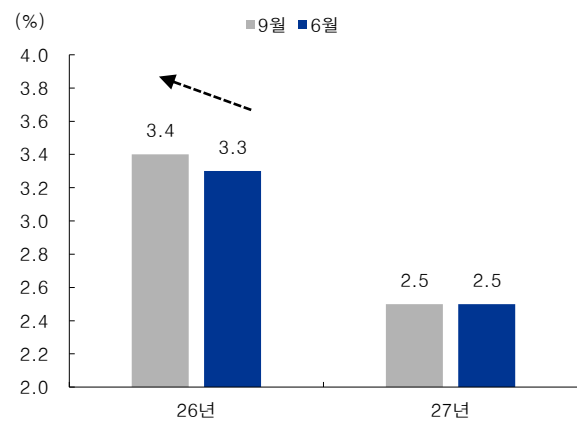
자료: FOMC, IBK투자증권

그림 2. 9월 FOMC, PCE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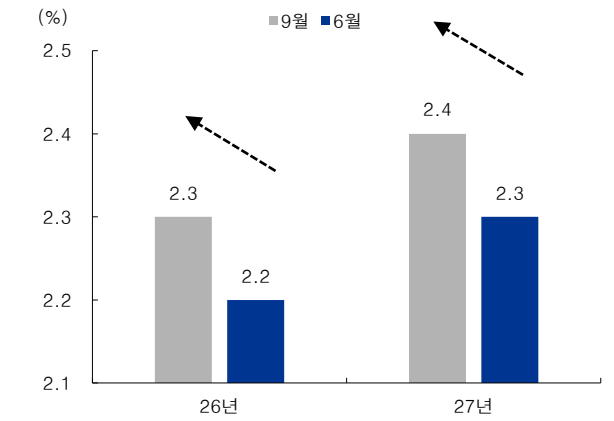
자료: FOMC, IBK투자증권

그림 3. 9월 FOMC, Core PCE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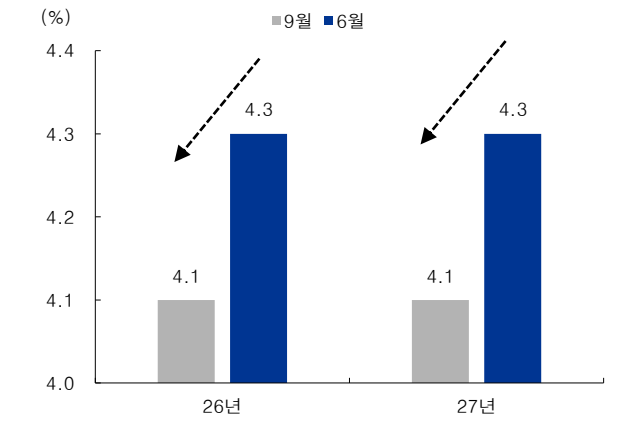
자료: FOMC, IBK투자증권

그림 4. 9월 FOMC, GDP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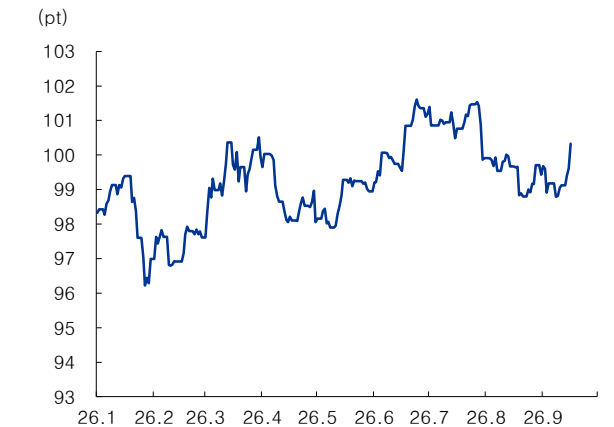
자료: FOMC, IBK투자증권

그림 5. 9월 FOMC, 실업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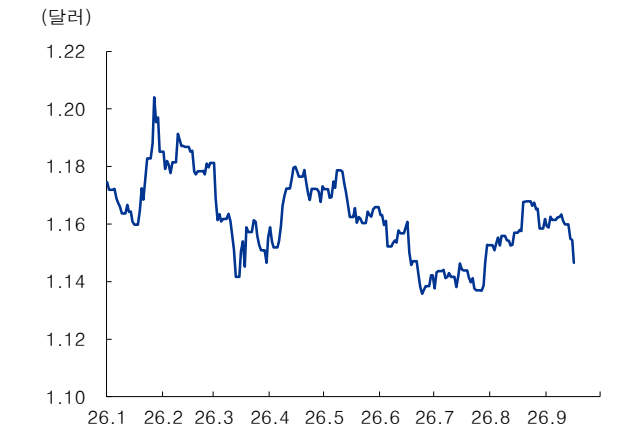
자료: FOMC, IBK투자증권

그림 6 연초 이후, 달러 인덱스 추이



자료: Bloomberg, IBK투자증권

그림 7 연초 이후, 유로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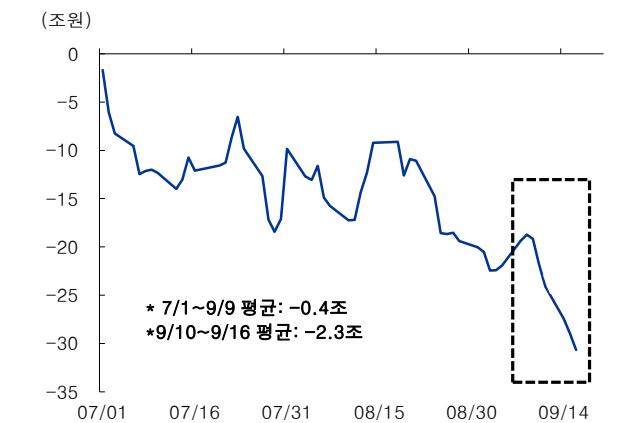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IBK투자증권

그림 8. 연초 이후, 원/달러 환율 추이



자료: Bloomberg, IBK투자증권

그림 9 하반기 이후, 외국인 코스피 순매도 추이



자료: 에프앤가이드QuantiWise, IBK투자증권